

▶ 이 글은 경제풍월 4월호에 게재된 것으로 최두환 대한석유협회 회장의 취재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 정유산업 자유화 시련 -

비판하되 애정도 주세요

“불공정 지탄에 오해 불신”해명



최 두 환

< 대한석유협회 회장 >

개방과 자유화의 과도기 고통

국내 정유업계가 주목과 감시받는 시련을 겪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일부 정유사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 당국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석유산업은 97년이래 개방화와 자유화로 외형상 경쟁체제에 들어섰다.

그러나 속으로는 선후발 정유회사간 마케팅전략으로 불편한 관계이고 정유회사와 수입업자간 경쟁도 미묘한 이해마찰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원유가 등락에 따른 환차손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밖에서 지켜보기로는 정유업계가 외형상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아직은 시장경쟁질서가 체질화되지 못해 전전공공하는 형세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이럴때 정유업계 대변기관인 대한석유협회 13대 회장으로 전 국회의원 최두환(崔斗煥)씨가 취임했다.

신임 최 회장은 연세대 졸업, ROTC 1기생 출신으로 업계와 정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집권 민주당 지도층과 교분이 두터워 세칭 실세 회장으로 불린다.

그래서 최두환 회장 체제 하에서 정유업계가 국가와 사회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내부의 경쟁질서도 재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 것이다.

대국민 홍보부족 아쉬워

정유업계는 지난해 군납유류 담합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최근 1천2백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과징금 규모 사상최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유업계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신임 석유협회장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같은 불상사를 일거에 회복시킬 방도는 없다.

취임후 공정위와 산자부 등을 방문하여 전후사정을 파악했다는 최 회장은 우선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업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최 회장은 “알고 보니 실제 이상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해명하고 석유산업이 자유화된 이후 “외부에서 보기 보다 경영환경이 매우 척박하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다”고 일러준다.

그는 정유업계가 내부의 진통에 쫓기느라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진단한다.

“석유는 우리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 주에너지원이죠. 지금도 총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기초에너지로 정유업계가 공급책임을 훌륭히 맡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도와 위상에 맞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앞서 스스로 대국민 홍보에 소홀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납은 특수규격의 특수시장

최 회장은 업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는 것이 도리라고 전제하면서도 실상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

“정유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비판이나 질책이 계속되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중대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여 석유산업의 실패는 국가경제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론보도가 충분한 객관성을 유지토록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언론보도문제는 지난해에 있었던 군납유류 담합사건과 최근에 있었던 군납유찰과 관련된 보도가 섭섭했다는 말이다.

그는 군납유찰을 ‘과징금에 대한 보복’이나 ‘입찰 방식 변경에 따른 조직적 반발’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다.

군납시장은 수요자 독점시장인데다가 특수 규격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 납품지역도 무려 1천여곳에 달하여 일반 내수시장과는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도 국방부 조달본부가 일방적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국내 생산가격에도 못 미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수준으로 제시하여 정유회사 뿐만 아니라 수입상사나 국제 석유회사들도 응찰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또 하나 ‘군 작전용 유류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유회사는 입찰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3월 1일부터 재고분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사전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항변하듯 말한다.

각계 시각으로 업계 비판

정유업계가 장사가 안된다고 군납유류를 거부하길란 어려운 상황이다.

최 회장도 군납유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지

만 군납문제의 핵심은 가격문제로서 내수와 수출, 대량구매와 다품종 소량구매, 그리고 인도조건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방부가 납품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가격과 입찰방식을 제시하면 정유사도 즉각 입찰에 참여하여 군의 유통조달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하루속히 산자부와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여 계속되는 유찰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 회장은 최근의 정유업계가 동시다발적인 각계의 비판과 온갖 정책방향 제시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소개한다.

“업계가 개방과 자유화의 여파로 시장경쟁체제에 적응하려는 과정에 시장참여자 뿐만 아니라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저마다의 시각으로 비판하고 제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업계는 고유가와 고환율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머지 않아 외국의 메이저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를 위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자구노력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원가비중의 85%가 수입 원유와 관련되니 자구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유회사들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외형이 막대하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한 벼랑을 헤매고 있는 격이라는 말이다.

석유산업의 실패는 국가 경제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론보도가 충분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원사간 이해 최대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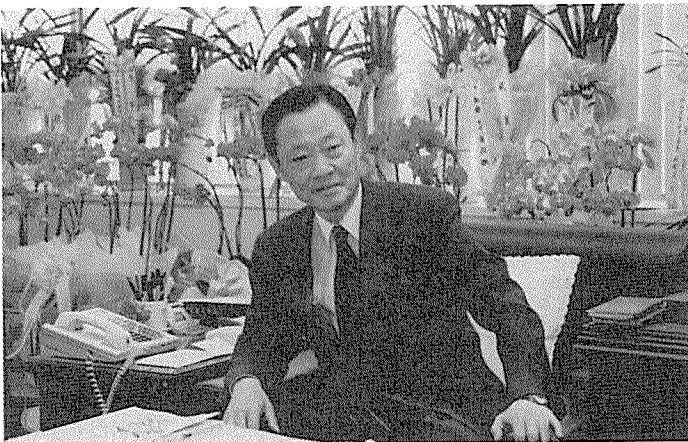
정유업계 내부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주식회사와 LG칼텍스정유 그리고 에스오일과 현대정유간에 이해가 마찰되는 사안이 적지 않다. 에스오일은 공격적 마케팅을 선호하는 편이고 현대정유는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하다는 소문이며 SK주식회사와 LG칼텍스정유는 수입상사 등으로부터 공세를 받는 입장이다.

현안이 되고 있는 주유소 상표 표시제를 두고도 회원사간 입장이 다르다.

석유협회가 이를 조정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최 회장은 회원사간에 민감한 이 주유소 상표 표시제를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혼란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협회의 임무”라고만 밝힌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 대해 “이는 시대적인 추세이며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석유제품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시장을 기본으로 하여 온라인에서 잉여물량을 소화하는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두 시장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한다.

최 회장은 최근 필수 공익사업에서 정유산업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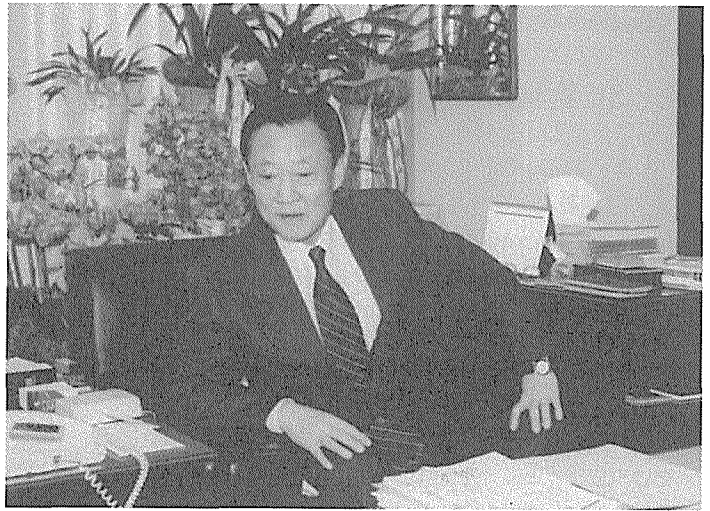
“필수 공익사업이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석유가 국내에너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급 중단은 국내경제의 마비를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도, 버스, 수도, 전기 등과 마찬가지로 정유산업이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회원사 이익과 공익을 조화

최 회장은 석유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한다. 각계에서 석유 정책이나 정유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최 회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회원사의 이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며 정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그는 한눈 팔지 않고 경험과 지식을 쏟아 대국민 이해증진과 공동이익 확대에 헌신할 각오임을 다짐한다.

그는 매사에 자신감 있고 소신이 뚜렷하기로 유명



하다. 비록 단구에 몸집마저 작은편이지만 마이크 앞에 서면 장내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 잡는다. 그렇지만 협회장으로 회원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소신을 앞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다. 실제 몇 안되는 회원사이지만 회사마다 입장과 경영실태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조정과 타협에 익숙한 최회장도 회원사 이익이 서로 다른 문제에 관한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점이 괴롭다고 실토했다. 최회장은 미결을 두고 못보는 성품이지만 “협회장의 위치가 이런것이구나”라고 실감했다는 소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최 회장은 92년 서울 강서를 지구에서 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무위 간사로 활약했고 국회 통일안보연구회 초대회장, 국민회의 원내총무, 15대 대통령선거 강서구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연대 행정대학원(석사)과 미국 남주주대 행정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다 대한석유협회장을 맡았다. ☪